

## ‘이동 약자를 위한 무장애 지도(앱) 구축 정책 간담회’ 개최

20일(수), 오후2시 원내대표 회의실서 정부·기업·장애인단체 등 참석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산하 장애인권리보장팀 주최,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 주관으로 7월 20일(수) 오후 2시부터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이동 약자를 위한 무장애 지도(앱)구축 정책간담회(이하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홍근 원내대표와 주관을 맡은 이용빈 의원을 비롯 장애인권리보장팀 소속 의원들과 보건복지부, 교보교육재단, 협동조합 무의, 한국장애인관광협회, 대전 협동조합 위즈온, 한국장애인개발원, 국토지리정보원, 카카오맵, 한국지능정보화진흥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이 지난 6일 무장애 인증을 받은 지역이나 시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을 지도에 의무적으로 표기하는 내용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콕정숙법’\*(이하, 콕정숙법)을 대표 발의한 것을 계기로 마련됐다.

\*광주에서 활동했던 故콕정숙 전 의원(민주노동당)이 생전에 제안했던 내용을 발의함.

민관에서 각각 자체 제작중인 무장애지도(앱) 사례 발표를 듣고, 각 기관들의 유기적인 협력과 이동약자들의 정보접근성 제고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사회는 이용빈 의원이 나섰고, 사례 발표는 보건복지부와 교보교육재단이 맡았고, 참석자 전원이 종합토론에 참여한다.

이번 간담회를 제안한 이용빈 의원은 “이동 약자를 위한 정보서비스 제공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점에서 환영하지만, 개별 주체들이 데이터를 구축하는 일부터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고 들었다”면서 “민관이 협력하는 무장애 지도

(앱)을 제작 여건을 마련해, 무장애 도시를 만들어가는 첫 단추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정숙법에 한국장애인개발원을 비롯해 한국감정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이하 무장애 인증제도)를 통해 축적한 무장애 데이터를 정부와 지자체가 지도에 제작하도록 규정했다. <끝>

2022. 7. 19.



민생우선실천단 장애인권리보장팀